

#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49 >

이름...  
두려워 두려워

오빠!!!  
히!!  
오빠 어제 여자친구랑 왔던 오빠 맞지?  
아... 응.

이상하다... 선수의 가족 이라면 분명 사진이나 트로피가 여기저기 걸려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아무 것도 없는걸?

특히나 이런 작은 동네의 영웅이라면 더욱 심할 텐데... 카운터에 작은 사진조차 올려놓지 않았어.

여자친구는 어따 두고 아침부터 여기 왔어?  
커피... 커피 마시려고 왔지.  
모닝 커피?  
응... 아침에는 역시 모닝커피지.

내졌두?  
그래. 마셔. 마셔.

그나저나 얼굴 네모난 분은 안 보이시네?  
애앵?! 그쪽 취향?!  
아.. 아니!! 아냐! 아냐!!

오..응.. 커피에 노른자가...  
오빠 설마 모닝커피 처음 마셔봐?  
무..무슨 소리!! 많이 마셔봤지! 노른자가 좀 많이 익은거 같아서 말야!

어제 서비스로 커피를 얻어 마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왔는데...  
언니는 아침엔 병원 가요.  
병원?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 Culture diary

### 가곡에서 히트곡까지 조수미의 주옥같은 레퍼토리

● 조수미 데뷔 30주년 '라 프리마돈나' | 8월28일 오후5시 |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86년 10월 26일.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난 지 2년 반 만에 소프라노 조수미는 이탈리아 5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트리스테의 베르디극장에서 리콜레토의 '질다' 역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당시 나이 만 23세.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동양인 프리마돈나가 탄생한 순간이다.

조수미가 국제 오페라 무대 데뷔 30주년을 맞아 자신의 음악을 집대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스페셜 콘서트 '라 프리마돈나'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8월28일 서울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충주, 군산, 안양 등 전국에서 열린다.



조수미의 리사이틀은 2014년 4월 이후 2년 반 만이다. 피아노 한 대와 조수미의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꾸민다. 유럽 등 주요 무대에서 조수미와 함께 연주해 온 피아니스트 제프 코헨이 함께 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조수미는 세계 유수의 성악가들조차 공연이 쉽지 않았던 다이엘 오베르의 오페라 '마농 레스코' 중 '웃음의 아리아'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4월 벨기에에서 노래해 유럽의 오페라 팬들을 매료시킨 곡이다. 30년 전 데뷔무대에서 불렀던 베르디의 오페라 '리콜레토' 중 '그리운 이름이여', 비슈의 '종달새의 노래', 비발디의 '별시 당한 신부' 등 주옥같은 소프라노 레퍼토리를 들을 수 있다. 한국가곡은 물론 조수미의 히트곡인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도 준비했다.

공연을 앞둔 조수미는 "별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돌아보니 30년이 흘렀다. 나는 지금까지 온 30년보다 나아갈 30년이 더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 호른리스트 김홍박, 고국에서 7년만의 리사이틀

● 김홍박 호른 리사이틀 | 7월16일 오후 8시 |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유럽 메이저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한국인 금관 수석인 호른리스트 김홍박이 7년 만에 고국에서 정식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현재 북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오슬로 발하모니 오케스트라 호른 중진수석이자 세계 최고의 금관을 자랑하는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객원수석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인 음악가로서 세계무대의 보이지 않는 천장을 깬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연주회의 테마는 '프렌치 호른'. 오늘날 사용되는 호른이란 이름이 프렌치 호른의 약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호른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프랑스로 유입되어 관현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며 지금의 형태로 자리잡은 악기이다. 김홍박은 이번 공연을 통해 호른이 지닌 본연의 음색과 울림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랑스 레퍼토리를 연주할 계획이다. 특히 프랑스 작곡가 샤브리에, 케를랭, 토마시, 드페이외의 작품들은 국내 초연되는 곡들이다.

### 독일의 낭만과 작곡가 슈만-브람스의 작품세계

● 금호아트홀 '로베르트&요하네스' 시리즈 | 6월30일·8월25일 | 서울 금호아트홀

금호아트홀이 독일의 낭만성을 대표하는 두 명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과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래식 레퍼토리를 새로운 시선을 바라보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6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식으로 슈만과 브람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본다.



6월30일은 브람스의 숨겨진 성악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소프라노 양지영,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박태운, 바리톤 성승욱이 따로 또 함께 브람스의 사중창 작품 세 곡과 독창곡 8곡을 노래한다. 국내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브람스의 사중창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듯. 브람스는 총 5곡의 사중창 작품을 남겼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브람스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세 작품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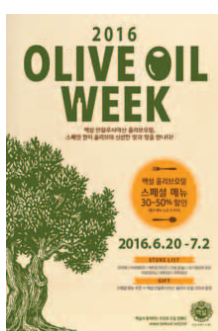
8월25일에는 슈만 성악곡의 집대성으로 불리는 '괴테 파우스트의 장면' 중 에센스만을 발췌해 선보인다. 슈만이 러시아를 여행하던 중 괴테의 희곡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완성한 대작이다. 오라토리오 형식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그리는 데에 집중했다는 점이 다른 작곡가들의 '파우스트'와 다르다. 소프라노 홍주영, 테너 김동원, 바리톤 공병우·성승욱이 무대에 오른다.

뉴스디자인 | 김창조 기자 minigram@donga.com

## Biz gallery

### CJ제일제당, '2016 올리브 오일 위크'

CJ제일제당은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일대에서 '2016 올리브 오일 위크(Olive oil Week·사진)'를 개최한다. 올리브유 성숙기를 맞아 백설 안달루시아산 올리브유의 인지도 확대와 올리브유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하는 행사이다. 도산공원 일대 레스토랑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백설 안달루시아산 올리브유를 활용한 스페셜 메뉴를 30%~50% 할인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백설 안달루시아산 올리브유를 선물로 증정한다. 백설 안달루시아산 올리브유는 세계 최대 올리브 산지인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직수입한 '오히블랑카' 열매로만 만든 100%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다.



### 서울유유협동조합, '어린이 창작대잔치'

서울유유협동조합이 유제품 용기를 재활용해 창작 조형물을 만드는 제18회 어린이 창작대잔치 공모(사진) 접수를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전국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생이면 개인 혹은 2인 이상 30인 이하의 단체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 마신 우유팩이나 요구르트병 용기를 활용해 창작조형물을 만든 후 작품 촬영사진을 서울유유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 '애니팡 포커' 사전예약 20만 돌파

선데이토즈는 7월 초 출시를 앞둔 신작 '애니팡 포커'의 사전 예약 신청 인원이 7월 만에 20만명을

돌파(사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맛고'로 입증된 카드 게임에 대한 성인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애니팡플러스 수상준 대표는 "이용 연령이 제한적인 게임의 특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이런 큰 성과다"며 "포커 고유의 재미와 함께 맛고에 이은 건전한 카드 게임의 성공을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데이토즈는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예약 참여자 전원에게 다양한 아이템을 증정한다.



### 롯데칠성, '데일리C 청포도워터' 출시

롯데칠성음료가 비타민C 1000mg이 들어있는 신제품 '데일리C 청포도워터'(사진)를 선보였다. 지난 2010년 레몬워터, 2014년 자몽워터 출시 이후 세 번째 제품으로, 데일리C 브랜드 이

미지 강화를 위해 선보이는 비타민 C음료이다. 청포도 과즙과 함께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 100mg의 10배 분량인 1000mg이 들어있어 평소 꾸준히 챙겨먹기 어려운 비타민C를 언제 어디서나 청포도의 품위와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피부 보습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히알루론산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 네오위즈 '마음의 소리' 업데이트

네오위즈게임즈는 자회사 네오위즈에이블 스튜디오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마음의 소리'에 신규 콘텐츠 '거대외계인'을 업데이트(사진)했다. 부대원들과 협력해 공략하는 길드(부대) 콘텐츠다. 기여도에 따라 개인에게는 골드(게임머니)를, 부대에게



는 랭킹을 올릴 수 있는 훈장 포인트를 지급한다.

### 게임빌, 글로벌 대작 2종 출격 채비

게임빌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작 모바일게임 2종(사진)을 곧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킹덤오브워'는 실사풍 그래픽과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대형 3D 전략 역할수행게임(RPG). 전술적 플레이가 강점이다. '마스커레이드'는 아트 토이를 모티브로 제작한 3D 횡스크롤 액션 RPG다. 터치와 스와이프를 이용한 최소 버튼으로 다이내믹한 패전의 전투를 즐길 수 있다. 게임빌은 이밖에도 하반기 중 '데일리리언', '워오브크라운', '나인하츠', 'ACE' 등 블록버스터급 신작들을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

